

VOL.4

KOREA COAST GUARD NEWSLETTER
2024.7

해경IN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소식지



”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주세요!
“

해경IN

해양경찰 + IN(人)의 합성어로 해양경찰의 다양한 정보와 사람사를 나타내며,
영어 IN은 Internet(인터넷, 온라인), Information(다양한 뉴스와 정보) 등
앞으로 해양경찰이 나아갈 꿈과 희망의 100년을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자는 뜻입니다.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Contents

발행처 해양경찰청 | 발행연도 2024년 | 주소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로 3-8)
홈페이지 www.kcg.go.kr | 제작 매드 031-442-2273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04 해양경찰&국민만족도 조사 소개

- 해양경찰은 어떤 일을 하나요?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는 무엇인가요?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06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 HOT NEWS

07 2023년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 월간 민원 만족도 조사
- 체감안전도 조사

08 “해양경찰 감사합니다”

- 해양경찰에 감동한 국민과 감동을 선사한 직원 인터뷰

12 '24년 상반기 국민만족도 향상 우수사례

- 친환경 대체 연료유 공급으로 멸치잡이 어선 조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다!
- 소외도서 통영 오곡도, 신규 도선 취항으로 18년만에 뱃길을 열다!
- 생명의 줄사다리를 연결하여 침수선박 선원 전원(11명)을 구조하다!
- 수난구호에 참여한 국민 누구에게나 공통된 보상을 지원하다!
- 갯벌 인명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부안 갯벌구조대」 출범하다!

17 '24년 상반기 국민만족도 향상 개선사례

- 수상레저 주요 민원 '정부24' 연계 서비스 도입
- 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 환경개선
- 영상접견 및 화상조사로 국민 불편 해소

20 국민패널·청년패널 소개 및 활동 각오

22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23 (이벤트) 해양경찰 퀴즈 십자말풀이

「해경IN」 4호 표지이야기

여름철을 맞이해 물놀이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를 표지에 담았습니다.

〈물놀이 활동 시 구명조끼 꼭 착용하기〉 기억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과 해양경찰이 함께 만든 소식지 「해경IN」을 소개합니다!



엇그제 겨울이 지나 대지에 푸르름이 차오르는가 싶더니 어느덧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는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은 거친 파도 속에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성장을 거듭해 온 해양경찰이 70돌을 맞이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은 지난 70년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항상 정책의 방향은 국민을 바라봐야 하고 그 수준은 국민 눈높이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해양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매월 해양경찰을 찾아주신 국민을 대상으로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패널’을 세분화하여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청년패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과 성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해경IN」을 발간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많은 분과 공유하기 위해 바다 방문객이 많은 여름철 성수기로 발간 시기를 맞추었습니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와 해양경찰 활약상을 보시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고언도 서슴지 말아주십시오.

여름철 건강관리와 함께 해양활동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해양경찰은 항상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7월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성식**

해양경찰&국민만족도 조사 소개

* 1

해양경찰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해양주권 수호

- 독도, 이어도 등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
- 국가 권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 해양 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활동



해양재난 관리

- 각종 선박사고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 태풍, 지진해일 등 해양재난에 대비·대응
-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해상질서 유지

- 선박교통관제(VTS) 및 선박 출입항 관리
- 유도선 안전관리 및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
- 유조선, 유해물질(HNS) 운반선 등 위험선박 안전관리



해양범죄 수사

-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정보활동
-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 범죄 수사
- 밀·입출국, 밀수, 해적 등 국제성 범죄 단속



해양오염 방제

- 국가 해양오염 방제정책 수립·운영
- 해양오염 예방·점검·조사
- 해양오염 방제 총괄지휘/해안방제 지원 등 해양오염 사고 대응



* 2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는 무엇인가요?

국민만족도란 해양경찰이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21년 8월 제정한 「해양경찰 국민만족도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월간 민원 만족도 조사(치안서비스 만족도 조사)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민원 등을 신청한 국민에게 매월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신고·선박서류발급·민원·수상레저

#서비스 경험 고객

#서비스 만족도

2. 체감안전도 조사

해양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관할 해역이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해안 인접 지역 거주자

#해양경찰 잠재적 고객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

3. 국민패널 조사

해양경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선정된 국민 패널을 대상으로 주요정책과 제도·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정책토론 등

#국민패널 「바다소리」

#국민의 목소리 대변

#해양경찰 관련 민간단체





1월

「해양재난구조대법」 공포

민간구조세력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법」 공포(24. 1. 2)로 해양재난구조대를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으로서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 지원 등 제2의 지원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 개시



해양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방법: 신고자 휴대전화 문자로 인터넷 주소가 전송되어 누르면, 현장 영상과 GPS 위치 전송

2월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해양경찰청이 종합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4월

미국 USCG 태평양 사령관과 포괄적 해양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



미국 해안경비대(USCG) 태평양 사령관을 만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수색구조·국제 범죄 대응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SOS 구조버튼 누르기 캠페인 시행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어선을 대상으로 SOS 구조버튼 누르기 캠페인을 4월 중순부터 연중 진행하고 있다. 어민이 급박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체득 훈련으로, 바다에서의 어로 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24. 4. 9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우리 국민의 이익과 안전만을 우선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에라도르 무상 양여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30년간 우리 해상을 지키는 경비함정인 3001함을 에라도르에 양여했다. 우리 정부가 해외 국가에 양여한 함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에라도르 해군의 기함으로 해양 치안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5월

선박교통관제(VTS) 업무 10주년



해양경찰청에서 선박교통관제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이관된 지 10년을 맞이했다. 10년간 관제구역 84%가 확대되었으며,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시스템 고도화, 인프라 구축 등 선박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총출한 바다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6월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 전문가 회의」가 22개국 1지역 1국제기구 약 80명이 참석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쉐라톤 호텔에서 열렸다.

「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 개최



올해 7회를 맞이한 「국제 해양·안전대전」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국내외 조선소 및 첨단 해양장비 관련 유관기업 등이 참가하였으며, 해양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해양경찰 덕분에 살게되었습니다"



부두 7m 아래로 추락한 상황에서 구조된 국민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한국구조연합회 황민선 대장이라고 합니다.

민간해양구조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양 구조활동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Q 평소 해양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 걸어가며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경과는 달리 해양경찰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사소하게 잘못을 하여도 비난받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A 인천 제3한강 모래부두의 7m 높이에서 추락 하였으며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후 다시 들어오고 있던 상황이라 10분만 더 늦었다면 사망할 뻔했는데,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갯벌에서 국민을 수색하여 해경에 인계한 적이 있는데 갯벌에서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까지 하니 무척 힘들 것 같습니다.

Q 귀하께서 느끼기에 해양경찰 신고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나요?

A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추락했을 당시 물이 빠진 상태였는데, 물이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만족하시거나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A 해경 중에 여경도 많이 보이는데, 밤이든 새벽이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적극적으로 상황 대응을 열심히 하시고,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빠르게 이뤄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사람을 구조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경찰관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안부두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잦은데도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표창 수여 등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응원 또는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항상 힘들게 일하시고 거친 바다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현장에서의 상황은 예상할 수 없으며, 언제나 국민이 알아주지 못하겠지만 항상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해양경찰 감사합니다!!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 경위 강동원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2005년 해양경찰 특채로 입사하여 2024년 현재 인천해경구조대 2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위 강동원입니다.

Q 사건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A 당시 긴급상황 접수 후 남향으로 즉시 출항하여 사고 현장에서 약 7미터 추락한 신고자(국민)를 발견하였고, 즉시 구조사 2명이 신고자(국민) 상태를 확인한 결과 거동불가한 상태였으며 물때가 상승하고 있어 구조가 시급하였습니다.

신고자(국민)의 중증외상이 의심되어 경추보호대 착용 및 들것에 고정하고 구조정으로 이송하려는데, 주변이 갯벌이라서 신속하게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동방법에 대한 고민 끝에, 119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최대한 충격 없이 신고자(국민)를 구조정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Q 상황처리를 하면서 느낀점 및 해양경찰로서 앞으로의 각오 및 다짐 부탁드립니다.

A 사건 당시 신고자(국민)가 떨어진 높이를 보고 큰 부상이 예상되었으며, 신속한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차 부상 없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 해양경찰에 입사할 때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위험에 처한 국민이 부르는 곳에는 내 가족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 구조 임무에 임할 것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해양경찰 덕분에 안전하게 입항하였습니다"



초행길 향해 안내 받은 국민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부산 해운대 수영만 요트 경비장에서 요트를 정비해서 요트를 이용 중에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Q 평소 해양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해양경찰에 대해서는 실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나 해상 구조 관련하여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해양 레포트를 즐기면서 바다에 나갔을 때 해양경찰이 안전, 질서유지, 상황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많이 보았으며, 저도 이번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저의 요트 정박지는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며 요트를 정비하기 위하여 마산 사포구에 있는 곳으로 원거리 신고를 하고 출항하였습니다. 초행길에 바람과 역조류로 인하여 예상 도착시간 보다 늦게 도착하였고, 입항지 쪽 어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에 전화를 하니 첫 응대 때부터 따뜻한 어투로 저희가 출동해서 안내하겠다고, 곧 도착 예정이니 안심하고 있어 달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두려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해양경찰 덕분에 연안구조정의 안내를 따라 천천히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었습니다.

Q 당시 해양경찰 신고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A 네,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고 당시 제 주변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양경찰에서 제 얘기를 경청해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덕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신속히 도착해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목적지까지 안내할 때에도 계속해서 통화하면서 저희의 안전과 속도를 확인하면서 이동을 도와주셔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A 해양경찰에 대한 개선점은 전혀 없으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처럼 초행자들이 바다에서 식별하기 쉽도록 어장 주변 부표 등이 크게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응원 또는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요즘 부쩍 해상사고가 많은데,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지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바다 안전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 경위 김형석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2001년 11월 해양경찰에 임용되어 경찰서 정보과, 파출소, 경비함정 등에 발령받아 22년 5개월째 근무중이며, 현재는 창원해양경찰서 P-07정에서 경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위 김형석입니다.

Q 사건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A 근무하던 중 요트 선장님으로부터 부산에서 출항해 마산 아스테릭스 마리나로 향해 중 요트 스크류에 로프도 감기고, 야간이 되어 주변 양식장이 많이 있어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어 마산 난포항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먼저 선장님에게 인명피해 및 선박 안전상태를 여쭙어 보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주변 암초 등 위험요소 여부를 확인, 그곳에서 잠시 대기하시라고 한 후, 즉시 마산파출소 연안구조정(S-17정)에 직원 3명과 함께 승선 긴급출항, 전속 항해하여 마산 난포항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선장님과 전화 통화하여 인명 및 선박 이상유무를 재차 확인하였고, 주변 양식장이 많으니 저희 연안구조정(S-07정)을 따라서 안전하게 항해하라고 했으며, 난포항 아스테릭스 마리나까지 요트가 안벽에 계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인명과 선박 안전에 이상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쳤습니다.

Q 상황처리를 하면서 느낀점 및 해양경찰로서 앞으로의 각오 및 다짐 부탁드립니다.

A 해마다 우리나라는 해양스포츠(낚시, 선박레저, 요트 항해 등)를 즐기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항상 안전예방에 신경써야 합니다.

당시 선장님이 부산에서 마산으로 항해하는 초행길에 오던 중 스크류에 로프도 감기고, 야간이 되어 주변 양식장 때문에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였고 해양경찰관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구조 임무를 한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바다의 풍요로운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바다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친환경 대체 연료유 공급으로 멸치잡이 어선 조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다!



국민 불편사항

정부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제한에 따라 배출규제지역 멸치잡이 어선들은 조업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황함유량이 0.1% 넘는 연료유를 제한함에 따라 멸치잡이 어선들이 멸치 가공 연료유로 사용하는 '중유(황함유량 0.26%)'를 사용하지 못하고, '경유(황함유량 0.03%)'를 대체하여 사용했어야 했는데요. 무엇보다 '경유'는 '중유'보다 어업경비가 1.5~2배 많이 발생하고 대기오염에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개선내용

통영해양경찰서에서는 육상 농막 등에서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부생연료유 2호 C9' 제품이고효를 대비 저가인 것에 착안해 수협과의 성능 검증을 통해 멸치 가공 연료유로 적합함을 판정 받았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 및 부생연료유를 멸치권현망수협에 어업용 면세유로 정식 등록하여 면세유로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협-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멸치잡이 어선 대상 부생연료유를 정식 공급하여 조업경비 42.5%절감, 황함유량 1.6배 감소로 대기질 환경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소외도서 통영 오곡도, 신규 도선 취항으로 18년만에 뱃길을 열다!



오곡도 사진



오곡도 항로

국민 불편사항

2006년부터 통영 오곡도를 왕래하는 정기 여객선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은 미륵도 척포에서 낚시어선을 빌려 육상을 오고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낚시어선을 빌리는 데 연간 2백만원 이상을 부담하여 해상교통단절 문제에 대한 불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선내용



- 국민 소통: 오곡도 주민과의 간담회와 현장 답사를 통해 민생 불편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법령 검토: 국무조정실, 해양안전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도선 면허 규제 완화 검토하였습니다.
⇒ 거주민이 9명인 점을 감안하여, 매표소 등 시설조건을 완화하여 도선 면허를 발급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자 모집: 해수부, 통영시청과 협업하여 소외도서 도선 민간 위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자임을 홍보하여 他 업체의 민원을 예방하였습니다.
- 면허 발급: 오곡도 신규항로에 대한 도선 면허 발급하고 및 3월부터 정식 운항 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유·도선법을 완화 적용한 도선 신규항로 개설로 18년 간 해결하지 못했던 오곡도 해상교통문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선박명	승객/차량	운임비	운항시간
섬나들이호	40명/2대	무료	월·금 2회(09:00, 15:00)

생명의 줄사다리를 연결하여 침수선박 선원 전원(11명)을 구조하다!

발생상황

2024년 2월 15일, 제주도 인근섬(마라도) 남쪽 약 50km 해상에서 왼편으로 25도 이상 기울어져 침수가 진행 중인 침수 선박(금양 6호, 화물선 1959톤, 선원 11명)이 발생하였으나, 풍랑경보(풍속 16~18m/s) 발효, 파고 4.5m(2~3층 건물 높이)의 악천후로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구조내용

사고 당시 해상 기상이 악조건임에도 지휘부의 현명한 판단과 사고현장 구조요원의 창의적인 구조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구조 작업을 이행하여 선원 전원을 구조하였습니다.

Q. 기상이 좋지 않았는데, 지휘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한건가요?

- 풍랑경보가 발효되어 파고가 높아 단정(고무보트)으로 구조하기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바람이 오는 방향에 함정을 위치시켜 단정(고무보트)에서 구조하는 동안 바람으로 인한 추가적인 외력을 차단함으로써 침수선박에 직접 접근하는 인명구조를 지시하였습니다.

Q. 구조해야할 인원이 많았는데, 어떤 구조방법을 사용하신 건가요?

-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1명의 선원을 신속하게 구조 하기 위하여 선박에 있는 로프를 줄사다리로 만들어 구명보트에 내려오도록 선원들에게 안내하여 승선원 전원이 선박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천후 속 기동 중인 함정



조난 중인 선원(항공촬영)

수난구호에 참여한 국민 누구에게나 공통된 보상을 지원하다!

국민 불편사항

- 해양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국민의 수당 지급대상과 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공통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 긴급상황 발생으로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의한 구난업체 동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 수난구호: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수색, 구조, 구난의 업무와 구조된 사람이나 선박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

** 수난구호 종사명령: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이나 토지, 건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개선내용

수난구호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동일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의 표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표준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 기존 수당 지급 대상자에 '자발적 참여자'를 포함시켰습니다.

-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약과 규제 없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해상 사고 발생에 대한 지급 주체를 지정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수당 지급 대상지를 관할수역(영해)로 한정하여 공해상 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 시에 지급 주체가 없어 보상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공해상 사고 발생 시 선적지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상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수난구호 참여 시 인건비, 유류비만 지원했으나, 예인비, 장비 및 물품 동원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당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가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지자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난구호 종사명령 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갯벌 인명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부안 갯벌구조대」 출범하다!

국민 불편사항

- 최근 들어 연안체험(해루질 등) 활동자가 증가하면서 연안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안사고(38건)를 분석해보면 34.2%가 갯벌에서 발생하였으며, 갯벌에서의 연평균 사망자가 9명입니다.

* (갯벌체험객 증가) '21년 12,881명 → '22년 25,988명 → '23년 25,505명

- 부안해양경찰서 관할 지역인 고창 갯벌은 전북 유일의 갯벌로서 64km²의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갯벌 내 고립자를 신속하게 찾기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선내용

관내 갯벌 지형과 정보에 정통한 지역 민간자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갯벌구조대를 출범하여, 갯벌 내 인명사고를 대비하여 신속 동원할 수 있도록 예방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Q. 갯벌구조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 갯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갯벌이동이 용이한 트랙터를 활용하여 인명구조 소요시간을 2/3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안체험객 대규모 인명사고 시 최대 3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트랙터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갯벌 구조대



(역할) 갯벌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현지 기상정보 공유

(특징) 갯벌이동 용이한 트랙터 활용 구조대응시간 단축, 연안체험객 대규모 인명사고 대응 가능



국민만족도 개선사례 1

수상레저 주요 민원 ‘정부24’ 연계 서비스 도입

국민 불편사항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와서, 면허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싶은데 쉽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2월 VOC)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해양경찰서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니 불편합니다.”(3월 VOC)

“간단한 서류는 전산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4월 VOC)

* VOC(Voice of customer): 치안 서비스 조사에서 접수된 국민의 의견

노력사항

- 수상레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허증의 분실 등으로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모르거나 간편한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24’ 연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국민에게 친숙한 민원서비스 채널인 ‘정부24’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① 조종면허 증명서 발급, ② 조종면허 갱신기간, ③ 행정처분과 ④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들이 편리하게 수상레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① 알려드립니다.

- 조종면허증 갱신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boat.kcg.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 민원은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필수)
 훈 (-.....)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조회

정부24 ‘조종면허 갱신기간’ 조회

신청인 (필수)
 훈 (-.....) 조종면허정보(벌칙, 행정처분등) 조회

조종면허정보(벌칙, 행정처분등) 조회 결과

조회된 조종면허정보(벌칙행정처분등) 정보가 없습니다.

정부24 ‘조종면허 행정처분 결과 확인’



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 환경개선

국민 불편사항

“업무공간이 협소해서 선박서류 발급받을 때마다 서서 업무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24년 2월 VOC)

“사무실 공간도 좁고 시설이 노후되어 현실과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축 및 내부 수리 부탁드립니다.”(24년 1월 VOC)

“파출소 사무실이 너무 복잡해서 답답합니다. 좀 더 넓게 신축 좀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24년 3월 VOC)

“파출소 내에 민원인 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출입구 밖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하는 동안 기분이 불편하였습니다.(24년 3월 VOC)

노력사항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전국 97개 파출소 중 민원 사무공간 개선이 필요한 78개소의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청사 준공 20년 이상 된 24개 파출소의 노후개소 보수 등 리모델링과 근무인원 대비 민원 사무공간이 협소한 15개 파출소의 청사 신·증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파출소 청사 리모델링 및 신·증축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① 민원대 재배치

민원접수대 'ㄱ'자형으로 배치
속초서 주문진파출소



② 민원인 대기공간 마련

민원인 대기일자 설치
울산서 방어진파출소



③ 사무 집기류 재배치

'ㄱ'자형 책상, 'ㄱ'자형으로 재배치
사천서 하동파출소





영상접견 및 화상조사로 국민 불편 해소

국민 불편사항

“20~3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참고인 조사 때문에 섬에서 육지에 있는 해양경찰서로 방문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출석하기 꺼려집니다.”(1월 VOC)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로 해경에 구조요청을 할 때가 있는데 조사를 받기 위해 한두 번 조사받고 경찰서에 출두하는 건 번거로운 일입니다.”(1월 VOC)

“휴가철 바다에 놀러 갔다가 발생한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다시 해양경찰서로 가기에는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어요.”(2월 VOC)

“해양경찰서가 해안가 인접 지역에 있어서, 유치인 접견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2월 VOC)

노력사항

〈쉽게 접견할 수 있도록 유치인 영상통화접견 제도를 도입〉

피의자 유치 시 대면접견의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24년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 유치인 영상통화접견 제도를 도입하여 원거리 거주로 대면 접견이 어려운 접견 신청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조사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운영 예정〉

원격지 거주, 거동 불편, 생업 피해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경찰서에 가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4년 하반기부터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공간 및 사용기기의 제약 없이 조사 가능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국민패널 활동 각오

해양경찰청 국민패널 홈페이지
www.kcgpanel.co.kr



* 해양경찰 국민패널 '바다소리, 를 아시나요?

해양경찰 국민패널은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양경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으로 구성되며, 올해 국민패널 「바다소리」 2기를 모집하여 총 1,4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패널은 해양경찰 주요업무와 관련된 설문 조사, 정책제안과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데요. 해양경찰청에서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과 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년의 시각을 대표하는 '국민패널' 중의 '청년 국민패널'

올해는 최초로 해양경찰 정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전국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해양경찰학과 청년(만 19세~34세)중 희망자 100여 명으로 '청년패널'을 구성하였습니다. 청년 국민패널의 남다른 활동 각오를 보니 앞으로 활약상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이 어떠한 책임감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시민들이 잘 모르는 그 곳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활동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예담 청년패널



해양경찰이 꿈인 제가 해양경찰
청년패널로 선정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 활동의 목적이 해양경찰 정책
활성화인 만큼 저도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청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해양경찰 정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패널이
되겠습니다.

—— 김완휘 청년패널

경찰행정학과 학생으로 일반 경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해양경찰에 대해 무지하다고 생각되기에 이번 기회에 해양경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수용하는 해양경찰들의 모습을 본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내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 신민정 청년패널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지니겠습니다. 또 저의 작은 목소리가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번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며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윤서 청년패널

이러한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 처음인데,
이 처음을 제 장래희망인 해양경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해양경찰학부에서 배운 것들을 발판삼아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해양경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전영주 청년패널

해양경찰이 국민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해양경찰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한승훈 청년패널

해양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그에 따라 많은 해경 직원분들이
목숨을 걸고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있지만 해양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현장의 고충을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결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 앞으로 해양경찰 청년패널로서 활동하여
해양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해양경찰의 업무나 관련 정책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조태호 청년패널

해양경찰 청년패널로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양한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익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이세영 청년패널

어렸을 때부터 해양경찰에 관심이 많았는데,
해양경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미래의 해양경찰, 그 미래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민주 청년패널

해양경찰 청년패널로서 활동하며 미래의 해양경찰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은 물론 국민, 특히 청년들과 해양경찰이라는
조직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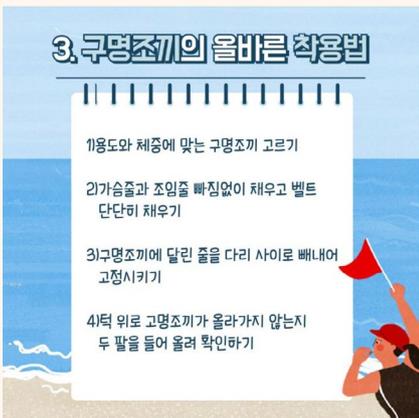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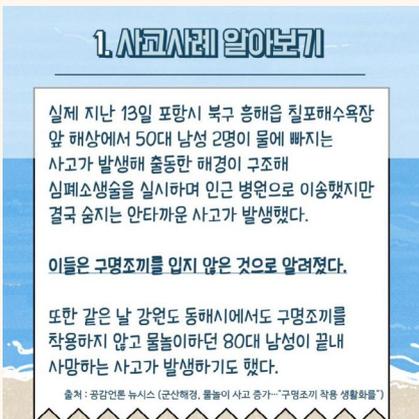
—— 전의희 청년패널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구명조끼를 생활화해요!



年 평균 약 208명이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율은 14%**에 불과(안전벨트 착용율은 83%) 하다고 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는 구명조끼부터 시작됩니다!
푸른 바다와 시원한 물놀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친구인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주세요!



출처 제7기 국민기자단(중부청) 조승규

해경IN 십자말풀이



1			1						2			
							3					
	2											
								4				
		3							6			
		5				4						
											7	
											8	
					7			5				
6											9	



가로 퀴즈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힌트: 적극○○○)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쌓기 위한 행위
- 국민만족도 조사 종류 중 국민이 관할 해역이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탑승자를 좌석에 고정시키는 끈으로 "구명조끼는 바다에서의 ○○○○"
-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향상 우수사례 중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도선법 완화 적용으로 18년만에 해상교통문제를 해결한 경남 통영시에 속해있는 섬
- 해양경찰 로고를 표현한 수리목 수리과의 대형 조류이며, 신속한 구조를 의미하는 동물은? (힌트: ○꼬리수리)
- 바닷물에서 해염을 치거나 즐기며 놀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 해양경찰청 본청이 위치한 지역 이름은?

세로 퀴즈

- 행정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조직과 기능 따위를 새롭게 바꾸는 행위
-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민간 연안 순찰요원의 명칭은? ○○○○지킴이
- 해양경찰이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 정도를 수치화한 것은?
- 해수욕장에서 쓰임에 조심해야 할 해양생물체. 대표적인 종류는 노무라입깃○○○
- 수상에서 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 '해양 관련 모든 의견을 담는다'의 뜻을 가진 해양경찰 국민패널 명칭은?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소식지 이름으로 해양경찰의 다양한 정보와 사람을 표현한 단어는?



7월 한달동안 십자말풀이 정답을 입력해주신 국민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답을 입력해주세요!
 (소식지 속에 답이 있어요^^)

